

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,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캠페인 실시

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@naver.com

등록 2023.07.13 10:44:37



▲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,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캠페인 실시

(중앙뉴스타임스 = 방재영 기자)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은 지난 12일 취약계층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기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캠페인을 실시했다.

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, 명예사회복지공무원, 영통2동 동장 및 직원들은 망포역 인근 편의점, 식당, 고시원 등 생활업종에 방문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물을 배부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알게 될 경우 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.

영통2동은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로 선정된 위기가구를 가정방문해 위기상황을 파악하고 긴급 지원, 기초생활보장수급 등 공적 지원과 민간자원을 적극 연계해 '맞춤형 복지서비스'를 지원할 예정이다.

조성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"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이 바로 복지의 시작이다.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"고 말했다.

공영화 영통2동장은 "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께 감사드린다.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통해 선제적 위기 가구 대응에 힘쓰겠다"고 전했다.